

인삼 예정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

박철수[#] · 박찬수 · 이용재 · 김경주 · 신해근

KT&G 중앙연구원

Soil chemical properties on the preplanting field in Korea

Chol-Soo Park[#], Chan-Soo Park, Yong-Jae Lee, Kyoung-Ju Kim, Hae-Kun Shin

Bio-resources Research Center, KT&G Central Research Institute, Suwon 441-480, Korea

우리나라 인삼재배 예정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알고자 2007년도에 예정지 2,546지점을 대상으로 비옥도와 중금속함량을 조사하였다.

예정지 토양 화학성 조사결과, 산성장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pH 4.8이하 포장은 북부 59개소(4.9%), 중부 44개소(4.7%), 남부 45개소(11.2%)로 전체 조사포장 중 148개소로 5.8%이었다. 인삼 생육중에 염류장해가 우려되는 EC 1.0 dS m⁻¹ 이상 포장은 240개소(9.4%)이었으며, 지역별로는 남부지역이 17.4%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. 인산함량 400 mg kg⁻¹ 이상 포장은 북부 414개소(34.2%), 중부 399개소(42.9%), 남부 194개소(48.1%)로 전체 1,007개소(39.6%)이었다.

토양 중금속 분석결과, Cd, Pb의 평균농도는 각각 0.041 mg kg⁻¹, 3.097 mg kg⁻¹으로 2005년 환경부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농도 0.078 mg kg⁻¹, 6.612 mg kg⁻¹보다 낮은 수준이었다.